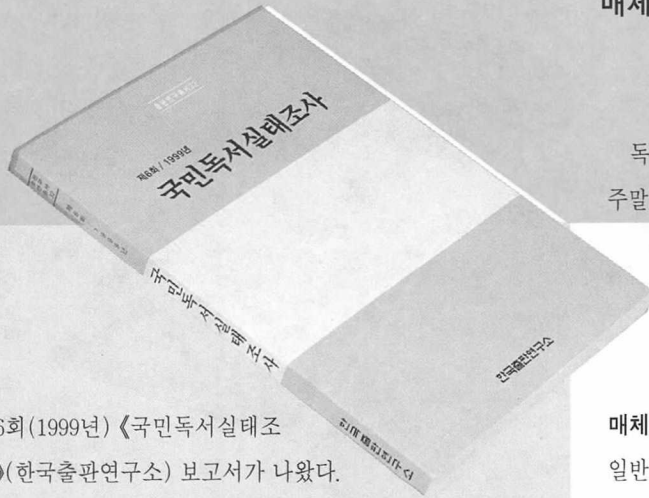


제6회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나와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독서량 감소 뚜렷이 나타나



제6회(1999년) 《국민독서실태조사》(한국출판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독서운동과 독서진흥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행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는 지난 93년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한국출판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초등학생 독서율 크게 떨어져

이번 보고서는 20세기의 마지막 국민독서지표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한해 걸러 실시된 조사의 결과보고서기 때문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는 93년 이후 해마다 실시돼 왔지만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아 지난해는 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96년 이래 3년만의 본격적인 조사다.

1997년 제5회 국민독서실태조사는 성인의 경우,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학생은 표본독자층을 서울로 한정했다. 이번 보고서의 시계열 비교에서 97년의 통계수치를 제외한 것은 이런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총괄한 출판연구소 김재운 연구부장은 “2년의 공백이 있는 셈이다. IMF가 독서환경에 끼친 영향을 정밀하게 주시할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조사결과는 96년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독서실태를 살펴보면, 독서율과 독서량이 감소했다.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학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의 독서율은 28% 포인트 낮아졌고, 독서량은 평균 2권이 줄었다.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가장 큰데, 28.2권(96년)에서 23.3권으로 3년 사이 무려 5권이 적어졌다. 여전히 성인 10명 중 2명은 한해 단 한권의 책도 안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평일 37분, 주말 34분으로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다만 평일 54분, 주말 44분으로 조사됐던 94년과는 여전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학생은 주말 51분, 평일 44분으로 주말에 더 책을 가까이하는 독서패턴을 드러냈다.

매체환경의 변화 뚜렷해

일반도서와 만화, 잡지,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 접촉시간과 다른 매체 접촉시간을 비교한 결과가 흥미롭다. 성인과 학생 모두 인쇄매체보다는 영상매체 접촉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은 그 폭이 2.5배에 이른다. PC통신과 인터넷 같은 정보매체의 이용시간 증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는데, 인터넷 서점과 온라인 도서정보 검색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가 그것이다. 인터넷 서점 이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성인 가운데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 비율은 32%(국의 인터넷 서점 이용률 0.7% 포함)에 불과하다. 반면, 온라인 출판정보서비스 이용률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증가세에 있다. 성인의 15.1%, 학생의 24.6%가 온라인으로 출판정보를 검색했다. 온라인을 통한 잡지와 소설 검색, 그리고 출판사 홈페이지 방문 수치도 7.3%~2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자책에 대한 인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온라인 소설·잡지 열독을 ‘독서행위로 본다’는 응답이 성인 59.9%, 초등학생 48.3%, 중학생 71.0%, 고등학생 73.6%로 각각 나타났다. 휴대용 전자책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생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인의 긍정적인 반응은 27.2%였다.

선호하는 저자와 기억나는 도서는 96년 조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인들이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를 10위 안에 꼽은 것을 제외하곤 변화가 없다. 이것은 지난 2년 사이 독자를 강하게 흡인한 책이 출현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재운 연구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린이들의 독서량 감소”를 꼽으며 “더 늦기 전에 읽기 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성일 기자